

말씀의 능력에 의해 자원하는 공동체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에서 교육열이 높고 상당히 부유한 곳으로 알려진 이 지역에는 대구동신교회와 대구 범어교회라는 제자훈련 목회로 유명한 두 큰 교회가 있다. 그런데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역시 제자훈련을 10여 년간 계속해온 '아멘교회'가 있다. 주위로부터 "크지 않지만 좋은 교회"로 인정받고 있는 아멘교회를 찾아가 최봉우 목사의 제자훈련 목회가 어떤 것인지 들어봤다.



책으로 배운 제자훈련

최봉우 목사는 어떻게 제자훈련에 대해서 알게 됐냐는 질문에 “제자훈련을 책으로 배웠다”라고 답했다. 대구 반야월교회 장로와 권사였던 최 목사의 부모님은 7남매 중 여섯째였던 그를 목회자로 드리겠다고 서원했다. 그는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자마자 입대해 사단 군중병으로 사역했고, 건강이 안 좋아져 통합 병원에 있으면서도 믿는 친구들과 늘 모여 예배하는 등 어디에 가든지 줄곧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군대를 마치고 신대원에 복학하기 전까지 그는 제자훈련에 대해서 별로 알지 못했다.

신대원에 복학해 당시 구약학 교수였던 김의원 교수의 주말 제자훈련 모임에 참여하게 된 것이 그가 제자훈련을 알게 된 계기였다. 거기서 제자훈련에 대한 도전을 받은 그는 그때부터 제자훈련에 대한 여러 권의 책을 읽으며 제자훈련의 원리와 본질을 깨닫게 됐다. 그 이후 대구동신교회 대학부에서 제자훈련을 경험한 사모를 통해서, 부목사와 협동목사 생활을 했던 교회 등에서 제자훈련을 접할 기회를 얻었다. 이런 경험들은 이후 그가 분명한 목회 철학을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최 목사는 아멘교회에 부임하기 전부터 “내가 목회를 한다면 제자훈련 목회를 하겠다”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부임하자마자 제자훈련 목회를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데에는 장벽이 남아 있었다.

알고 보니 부담스러웠던 제자훈련

최봉우 목사는 대신대학교에서 12년 동안 교수로 사역하다가 2002년 9월에 29년의 역사를 가진 대구 아멘교회의 2대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아멘교회를 개척한 전임목사가 16년 동안 사역하다가 중국 선교사로 떠난 상황이라 교회는 뒤숭숭한 분위기였고, 최 목사는 이 교회에 아무런 연고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에만 집중하면 오히려 상처는 더욱 커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최 목사는 나뉘진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계속 강조하면서도, 부임 즉시 소그룹 목회와 제자훈련을 통해 교회의 체질을 바꾸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리고 부임한 다음 해에 제자훈련을 하겠다고 선포하고 제자반 훈련생을 모집했다. 먼저 당회원들을 대상으로 제자훈련을 하는 단계가 생략됐다는 점에서 좀 무리한 행보였다고도 할 수 있다.

게다가 이때는 아직 최 목사가 제자훈련지도자세미나(이하 CAL세미나)에 참석하기 전이었다. CAL세미나에 참여하기도 전에 일단 제자훈련을 하겠다고 선포하고, 1기 제자훈련생을 먼저 모집한 후에 CAL세미나에 참석한 것이다. 그는 총신대학교 김세운 교수 밑에서 1년 반을 공부했고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성경과 신학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을 뿐 아니라 여러 통로로 제자훈련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기에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전통 교회에 제자훈련을 접목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회원부터 제자훈련을 받게 해야 한다는 ‘정석’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CAL세미나는 최 목사에게 격려보다 걱정을 먼저 선사했다.



최봉우 목사는 계명대학교 교육학과(B.A.)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M. Div., Th. M.), 동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신약학)을 수료했다. 대신대학교에서 교수로 사역하다가 2002년 9월, 대구 아멘교회에 부임해 지금까지 섬기고 있다.



“나름대로는 제자훈련에 대해서 많이 경험했고 철학이 확고하다고 생각했는데, CAL세미나에 들어가니 고민이 되더군요.”

고(故) 옥한흠 목사의 강의를 들으면서 최 목사는 제자훈련에 대한 도전보다는 “내가 과연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됐다고 한다. 그는 거기서 만난 한 목사님과의 대화 가운데 받은 격려가 없었다면, 어쩌면 제자훈련 목회를 포기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여하튼 일단 선발해 뒀던 사람들로 첫 제자반을 시작했다. 2003년 9월에 남자 5명, 여자 6명으로 시작한 1기 제자반은 2005년 2월에 이르러서야 마칠 수 있었다. 수료자는 남자 2명, 여자 6명이었다. 남자반에서 3명이 탈락했지만, 다행히 끝까지 제자훈련을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감사하게도 1기 여자반이 핵심멤버가 돼 제자훈련을 교회에 접목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아멘교회에 제자훈련을 처음 접목할 때 최 목사가 서둘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두 가지 중요한 전환점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었다. 하나는 모델 교회 탐방이었고, 또 하나는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이었다.

전환점1 - 제자훈련 모델 교회 탐방

기존 교회에 제자훈련을 접목할 때에는 당회원들부터 시작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아멘교회는 그렇게 훈련을 시작하지 못했다.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상황은 다행히 제자훈련 모델 교회 탐방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최 목사는 부임 후에 장로들과의 관계를 다지기 위해 여러 방법을 사용했지만, 그중에서도 장로들로 하여금 다른 교회들을 탐방하도록 한 것이 큰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특별히 장로들이 제자훈련 목회의 지원군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부산 호산나교회 최홍준 원로목사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

최홍준 목사는 아멘교회에서 탐방 온 장로들에게 장로들



이 먼저 제자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네비게이트 선교회를 경험한 장로도 있었기 때문에, 호산나 교회를 탐방하고 돌아온 장로들은 모두 제자훈련을 받겠다고 나섰다고 한다. 이렇게 당회원들은 1기가 아닌 2기 훈련생이 돼 아멘교회에 제자훈련을 정착시키는 데 힘을 모았다.

이후에도 최 목사는 소그룹 지도자들이나 훈련생들이 다른 교회를 탐방할 기회를 갖도록 유도했다. 소그룹 지도자들이 화평교회를 탐방하고, 최상태 목사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했던 것도 교회의 체질을 바꾸는 데 좋은 계기가 됐다.

전환점2 -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

아멘교회에 제자훈련 목회가 깊이 뿌리내리게 된 두 번째 전환점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이었다. 2기 제자훈련을 마치고 3기 제자훈련을 시작해야 할 시점에 개최한 이 캠페인은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교인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최봉우 목사는 제자훈련을 교회 내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그룹이 교회 내에서 살아 움직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당시 아멘교회에는 여성 구역만 18개가 있었을 뿐이었다. 교회 전체가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선 남자들의 소그룹이나 부부가 함께 모이는 소그룹이 만들어져야 했고, 특히 돌봄과 양육이 이뤄지는 소그룹이 돼야 했다.

이런 소그룹 중심 교회를 세우기 위해 최 목사는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을 선택했다. 이전까지 아멘교회의 성도들은 주로 개인 신앙 중심의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들에

계 교회 생활이란 공동체를 이루는 것임을 알려주는 데 40일 캠페인은 아주 적절한 선택이었다. 아멘교회는 이를 통해 소그룹의 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구역'이라고 불리던 소그룹이 '목장'이라고 불리게 됐고, '구역장'은 '목자'가 됐다.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양육과 돌봄이 있는 소그룹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

2005년에 2기 제자훈련을 받았고, 현재 새가족 도우미와 목자로 봉사하는 김순옥 권사는 40일 캠페인이 평생 삶의 기준이 됐다고 회고한다. 특히 집에서 모이는 소그룹 모임을 통해 교회의 공동체성이 무엇인지 체험했다고 한다.

2008년에 제자훈련을 받은 김태임 집사는 40일 캠페인 후에 함께 나가 전도했던 것을 떠올리며 “전도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을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것인 줄 처음 깨달았다”고 말한다.

최 목사는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으로 특히 양육과 훈련 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캠페인 이후에 양육 과정인 확신반, 성장반에 지원하는 사람이 증가했고, 당연히 제자반에도 지원자가 늘어났다.

이처럼 2006년은 아멘교회가 소그룹 중심 교회로 거듭난 해였다. 물론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거듭나는 것은 아니다. 담임 목사가 소그룹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지 못했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교인들에게 이를 가르치지 않았다면, 40일 캠페인도 일회성 행사로 끝났을 것이다.

최 목사는 부임 후 3년 동안은 구역장 모임 때마다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다. 구역장들에게 「소그룹 운동과 교회 성장」 등 관련 책을 읽히면서 소그룹에 대해 가르쳤다. 단순히 주중에 모여 구역예배를 드리는 모임이 아닌, 돌봄과 양육이 있는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치러진 40일 캠페인은 성도들에게 최 목사가 말하던 소그룹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체질이 개선되자, 무엇보다 성도들의 교제가 활발해졌다. 아멘교회에서 만난 평신도들은 입을 모아 “아멘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말한다. 김태임 집사는 특별히 새가족 모임이 잘 이뤄지고, 새가족이 쉽게 적응할

아멘교회에 제자훈련을 처음 접목할 때 최 목사가 서둘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두 가지 중요한 전환점을 통해 이를 극복해 갈 수 있었는데, 하나는 모델 교회 탐방이었고 또 하나는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이었다.



수 있다고 평한다. 김순옥 권사도 “가족 같은 교회”라고 하면서, 특히 금요일이나 토요일 등에 전도를 나가서 아멘교회에서 나왔다고 하면 “아, 그 교회 참 좋은 교회라면 서요”라는 말을 듣는다고 전했다.

그래서인지 아멘교회에는 꾸준히 새가족이 들어오고, 정착도 상당히 잘 이뤄지고 있다. 이는 새가족이 목장에 잘 연결되고 있다는 뜻이다. 아멘교회에 새가족이 들어오면, 4주 동안 일대일로 돌보는 도우미가 붙을 뿐 아니라, 환영회를 비롯한 여러 활동을 통해 집중적인 관심을 받게 된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다른 교회에서 장로로 섬기던 사람도 새가족반, 확신반, 성장반을 거치게 돼 있다.

새가족반이 끝나면 같이 새가족반을 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확신반(1년에 4번 개설)과 이후 성장반(1년에 2번 개설)으로 이어진다. 새가족으로 처음 등록한 5~7명이 한 그룹으로 묶여 함께 확신반 5주, 성장반 15주를 거치며 교회에 적응한다. 그러다 보면 서로 동기의식을 갖게 된다. 그리고 성장반 사람들이 모두 같이 제자훈련을 받고자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는 목장의 영향력도 크게 작용한다.

목장에 새가족이 들어오면, 그 목장의 모든 사람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배려하고 양육하는 데에 힘쓴다. 백경숙 집사는 자신이 새가족으로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의 이야기를 해줬다. “남편이 믿지 않아서 주일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기 전에 목장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정말 잘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참 좋아서 수요일예배에 나오게 되고, 그러다 주일예배를 나오게



아멘교회에서는 사역에 대한 강권이 없다. 사역훈련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영혼을 돌보겠다는 자원함이 없다면 강권하지 않는다. 거의 모든 사역이 자발적으로 돌아가는 교회다. 일은 모두 평신도들이 알아서 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법이 없다.

되고, 그러면서 등록하게 됐어요.”

이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164명이 제자반을 수료했다. 전도 또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태임 집사는 젊을 때에 믿음을 가졌다가 교회를 떠나 있었는데, 한의원에서 나눠준 전도사탕을 보고 교회에 왔다고 했다. “처음에는 교회 이름이 아멘교회여서 ‘이상한 교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화요한방팀이라는 무료 침 시술 봉사팀을 만났는데 정말 잘해 주시는 거예요. 이후 교회에서 만난 집사, 권사님들의 표정도 정말 따뜻하고 좋았어요. 가족 같은 교회임을 느꼈어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는 전도의 결과로 매년 새가족이 100명 정도 등록하고 있다. 한때는 새가족의 60% 이상이 처음 믿는 새신자일 정도였다. 최 목사 부임 당시 200명이 좀 넘는 교회가 3~4년 만에 100명이 더 늘어서 300명가량이 됐고, 지금은 450명 정도가 출석하고 있다. 전도와 함께 탄탄한 소그룹 중심 교회로 세워지지 않았다면 이런 꾸준한 성장을 보이긴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최봉우 목사는 교회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는다. 아멘교회의 소그룹 체계가 최근 정체된 느낌이라며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목자들이 7~8년씩 섬기다 보니, 지치는 모습이 보인다는 점이다. 최 목사는 목자들에게 사역이 겹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며,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격려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교회

소그룹 기반의 교회가 대부분 그러하듯, 아멘교회는 목회자의 1인 리더십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꾸려져 가고 있다. 다만 최봉우 목사는 자주 성도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을 뿐이다.

자원하는 교회에 대한 가르침은 새가족 모임 때부터 시작한다. 새가족 모임의 마지막 4주 차에는 새가족들과 최 목사가 만나는 시간을 갖는데, 그때 교회의 우선순위는 양육훈련, 목장 소그룹, 자원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자원해 섬기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아멘교회에서는 사역에 대한 강권이 없다. 사역훈련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영혼을 돌보겠다는 자원함이 없다면 강권하지 않는다. 거의 모든 사역이 자발적으로 돌아가는 교회다. 일은 모두 평신도들이 알아서 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법이 없다.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곳곳에서 일하고 있다.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새로 아멘교회에 부임한 부목사들은 모두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교회의 사역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며 놀란다.

자원하는 사람들에 의해 교회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성도들이 아멘교회를 자랑스럽게 느끼는 이유가 되고 있다. 백경숙 집사는 자원해서 섬기는 것이 이제 익숙하다며 이렇게 말한다. “목사님의 모토가 ‘늘 자원해서 하라’예요. 목사

님은 말씀만 전하시고, 성도들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멘교회에서 황금동에 있는 황금복지관을 섬기는 것도, 중국인 학생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도, 모두 최 목사가 추진한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나서서 이뤄진 사역들이다. 교회 내부의 사역보다는 교회 바깥의 사역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최 목사가 성도들에게 교회의 일이 아니라 각자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제자훈련

제자훈련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나눠 달라는 요청에 최봉우 목사는 자신의 훈련이 좀 약하다고 말했다. 자원하는 사람은 대부분 탈락되지 않는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수준 차이가 좀 있고, 훈련생을 선발하는 기준도 높지 않기 때문에 제자훈련의 강도가 약화되는 느낌도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 훈련 과제가 그리 약하지만은 않았다. 성경 읽기, 묵상, 암송, 설교 요약, 필독서 독후감, 생활숙제 등 필수 과제가 훈련생에게 부과된다. 다만 최 목사는 과제를 많이 내줘서 허덕이게 하는 것이 제자훈련이 아님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강하게 하다가, 현실을 보니 이분들이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더 심해질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다들 정말 바쁘게 살고 있어요.”

제자훈련을 받은 평신도들의 입장에서는 제자훈련이 어땠

을까? 김순옥 권사는 제자훈련 과제로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암송하고, 점검하고, 우리 목사님이 걸으러 보기에 마음 좋아 보이셔도 숙제는 끝까지 점검하시거든요. 숙제를 안 해 가면 얼굴이 벌겍게 될 정도로 부끄러워졌어요. 그래도 큐티, 암송, 예습 등이 몇 달 지나니까 훈련이 돼서 점점 재미있더라고요.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적용하고, 암송하며 묵상하니, 삶 가운데에서 그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러자 삶 전체가 변화됐어요.”

김명숙 권사도 “나이가 들어서 훈련을 받으려니까 정말 힘들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다들 한목소리로 하는 이야기는 “목사님은 한결같으셔서 기준이 확실하시다.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하신다”는 것이었다.

최 목사의 제자훈련이 과제로 점검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지금까지 계속 제자훈련이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던 것도, 그 이전에 제자훈련을 받은 사

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본 지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명숙 권사는 어떻게 제자훈련을 받을 생각을 했느냐는 질문에 “제자훈련을 받고 난 분들을 보니, 정말 밝아지고, 자신감 넘치게 사역하며, 활발하게 움직이시더라고요. 그게 부럽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훈련을 시작했어요”라고 대답했다.

제자훈련을 받은 평신도들은 입을 모아 제자훈련을 통해 삶이 크게 변화했다고 말한다. 불신 가정에서 태어난 김태임 집사는 젊을 때 예수님을 만났지만, 결혼 후 시댁 역시 전혀 믿지 않는 가정이었기에 교회를 떠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아멘교회에 출석하고 제자훈련을 받게 되면서 친절과 시댁을 모두 전도했다. “예수님의 현신을 따르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백경숙 집사의 경우도 역시 안 믿는 남편과 결혼한 후 성경책도 못 펴는 분위기에서 살았다고 한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받다 보니 숙제를 해야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성경을 보게 되고,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 이제는 남편이 성경을 펴놓아도 반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받게 됐는데 남편이 제게 성경공부 하라고 작은 책상을 하나 사 주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다니 정말 감사하죠.”

김명숙 권사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직장에서 월요일마다 전날 주일에 들은 최봉우 목사의 설교 말씀을 나눴다고 한다. “그 사람들은 전혀 믿음이 없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월요일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느냐면서,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직장 동료와 그 가족까지 모두 4명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이런 삶의 변화는 무엇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일까? 아멘교회에서 만난 평신도들은 모두 “말씀의 능력”이라고 고백한다. 아멘교회에서는 설교, 훈련, 목장 등 모든 곳에서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근거한 메시지가 주어지고, 그것에 의해 삶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성경 묵상을 중시하는 제자훈련

최봉우 목사의 목회와 제자훈련의 특징을 꼽으라면 철저히 성경 중심이고, 훈련생들에게 말씀 묵상을 강조한다는 데 있다. 신약학 박사 과정을 수료한 그의 이력 때문일 수도 있지만, 최 목사는 “제자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묵상”

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제자훈련 기간에 배우는 신학적 내용은 곧 잊어버리지만, 스스로 말씀을 읽고 듣고 인도함을 받는 연습을 하게 하면, 훈련 후 삶 속에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훈련생들은 제자훈련 숙제 중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이 큐티였다고 말한다. 백경숙 집사는 “제자훈련을 통해 가장 크게 얻은 자산이 큐티”라면서 “이제는 아침에 큐티를 하지 않으면 온종일 불안하다”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최 목사는 부임 초기부터 <매일성경>을 따라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훈련생들의 큐티 훈련을 위해서 <날마다 솟는 샘물>로 바뀌야 할지를 매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훈련에서 성경 묵상을 강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강해 설교를 하게 됐다. 아멘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최봉우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면, 한마디로 “군더더기가 없다”는 느낌이 든다. 오직 성경과 거기서 유추되는 신학적 진리만이 전해지는, 어찌면 신학교의 강의와도 같은 느낌의 설교가 매주 전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강해 설교는 제자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됐습니다. 사실 제자훈련을 하면 강해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주제



최봉우 목사의 목회와 제자훈련의 특징을 꼽으라면
철저히 성경 중심이고, 훈련생들에게
성경 묵상을 강조한다는 데 있다. 스스로 말씀을 읽고 듣고
인도함을 받는 연습을 하게 하면, 훈련 후 삶 속에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를 선택하더라도 그 텍스트를 강해하는 스타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매주 제 설교를 목장 교재로 만들어 주보에 실거든요. 설교에서 본문과 다른 소리를 하면, 그 교재가 귀납적 성경공부교재가 될 수 없어요.”

예배와 훈련과 목장 모임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성경의 메시지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목사의 설교를 신뢰하고, 그 메시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확신하게 된다. 또 평신도들은 최 목사의 강해 설교가 새가족을 전도하는 데에도 상당히 유용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순옥 권사는 최 목사의 설교에 대해 “쉬우면서도 깊이가 있다. 핵심을 뽑아내 머릿속에서 정리가 잘 되기에 새가족이나 기존 성도나 모두 다 잘 알아들을 수 있다”며, “제자훈련에서 성경을 배울 때에는 성경의 배경이나 상황, 원어의 배경까지 상세하게 제시하셔서 많이 배울 수 있다”고 말한다.

물론 이는 아멘교회가 위치한 지역이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환영받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최 목사는 제자훈련 목회는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둔 목회가 돼야 한다는 아주 기초적인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고, 아멘교회 역시 그 원칙을 따랐을 때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

아멘교회에 대한 미래의 소망이나 비전을 밝혀달라는 요청에 최 목사는 특별한 것이 없다고 대답했다. 성도들로 하여금 자원해 사역하게 하는 그의 목회 방법에서도 잘 드러나지만, 최 목사는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 목표를 내걸고 이를 위해 전력투구하는 것을 그다지 좋게 보지 않았다.

최 목사는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한다. “교회답다”, “성도답다”라는 평가를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랄 뿐,

몇 년 후에 어떤 일을 하겠다는 계획 같은 것은 없었다. 그리고 교회의 일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일터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최 목사의 목회 목표는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에서 일하는 것보다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데 있다.

그래서 최 목사가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은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다. 지금의 교회학교 학생들이 미래에도 확고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이를 위해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다. 아멘교회는 지금 교육관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역시도 다음 세대에 신앙을 계승하는 데 유용한 시설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 목사는 제자훈련을 시작할지 말지를 망설이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꼭 용기를 내서 제자훈련 사역을 시도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고 했다.

“물론 큰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려면, 제자훈련을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다만 이것이 사람을 키우는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면, 용기를 갖고 바로 시작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는 CAL세미나에 다녀와서 제자훈련을 포기할 생각까지 했던 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다.

아멘교회는 그리 큰 교회는 아니지만, 매우 건강하고 성경 중심적인 교회였다. 그 중심부에는 철저하게 말씀만을 가르치고자 하는 지도자가 있었고,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성도들이 있었다. 이처럼 말씀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원칙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영적 풍토가 변하지 않는다면, 아멘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라는 방향에서 어긋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멘교회가 대구지역 복음화와 교회 갱신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박희원 목사〉